

日韓教材翻訳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趣旨

本プロジェクトは、日本と韓国における成人基礎教育の教育現場において、どのような教材がどのように開発され、活用されているかを学び合うために行われました。教材を見れば、どのような教育が目指されているかがわかると言っても過言でないほど、教育において教材は重要なものです。

この教材翻訳プロジェクトでは、成人基礎教育のなかでも、韓国では文解教育、日本では識字教育と呼ばれるリテラシーの教育にかかわる教材が中心に扱われています。各教材の原書を紹介し、日本語と韓国語の両言語で読めるように翻訳を行いました。また、その教材の開発の趣旨、目的、教授方法等についての解説文（解題）を付けました。

◇韓国と日本のちがい

韓国側の教材は全て「文解教育」の現場で使用されているものです。それに対し、日本側の教材は、「被差別部落の識字教育」「夜間中学」「地域日本語教育」の各現場でのものです。両国の教育制度の違いによって、対象とする教育機関や学習者層が異なっているため、教材の紹介のし方も異なっています。

ただし、教材開発において、両国に、そしてどの領域にも共通していることは、各現場の教員をはじめ教育に携わる人々が、学習者の背景や思いを理解し、学習者の生活の質を高め、自尊心を取り戻せるように、様々な工夫を凝らして教材開発に取り組んでいることです。そのような教材開発者の学習者に対する思いを感じ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なお、教育制度の違いをはじめ、日韓の基礎教育に関しては、同じトヨタプロジェクトの一つである「ブックレット」に詳細が書かれていますので、教材の理解を深めるためにもぜひご参照ください。

教材翻訳プロジェクト

韓国：キム インスク

日本：新矢 麻紀子

한일 교재번역 프로젝트에 대해

◇취지

본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초교육의 교육현장에서 어떤 교재가 어떻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재를 보면 어떤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교육에 있어 교재는 중요합니다.

이번 교재번역 프로젝트에서는 성인기초교육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문해교육, 일본에서는 문해교육(識字教育)이라 불리는 리터교시 교육과 관련된 교재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각 교재의 원서를 소개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였습니다. 또 교재개발의 취지와 목적, 교수방법 등에 대한 해설문(해제)도 첨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

한국측 교재는 모두 「문해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측 교재는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육」 「야간중학교」 「지역일본어교육」의 현장에서 쓰이는 교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제도의 차이에 의해,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학습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를 소개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단 교재개발에 있어 일본과 한국의 어느 영역에서도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각 현장의 교원을 비롯한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습자의 배경과 마음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교재개발자의 학습자에 대한 마음을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제도의 차이는 물론, 일본과 한국의 기초교육에 관해서는 토요타
프로젝트의 하나인 「소책자」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교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소책자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재번역 프로젝트

한국 : 김 인숙

일본 : 신야 마키코